

#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고교 졸업이후에도 관심을”

### 총무원장 자승스님, 해명보육원 방문 어린이·직원들 격려...금일봉도 전달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3월31일 해명보육원을 방문, 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형주 기자 coojoo@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해명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31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명보육원을 방문, 이사장 선목스님(서울 도선사 주지·불교신문 사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이무성 해명보육원장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해성 큰스님께서 30년 전에 복지 분야에 눈을 뜨셔서 길을 열어 주셨다”면서 “그 힘으로 종단도 이제는 124개의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이무성 해명복지원장으로부터 시설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어린이들은 물론 고교 졸업 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어린이들이 지내고 있는 속소로 자리를 옮겨,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수로 총무원장 스님 일행을 맞이한 어린이들은 대중가요인 ‘마법의 성’과 ‘독도는 우리 땅’을 합창하기도 했다. 또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발차기 시범을 보여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어린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며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해명보육원 이사장 선목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으로 보육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총무원장 취임이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매달 한차례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간 용산참사 유가족, 수원 서호노인복지관,

박명선 박사(직지를 처음 알린 분으로 현재는 투병중), 이주노동자 바하두루씨(심장병으로 투병), 나눔의 집 등을 찾아 위로했다.

해명보육원은 서울 도선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명보육원은 2005년 2월과 2007년 11월 2회 연속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2006

년 11월17일에는 해명아동복지관을 증축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태평양복지재단, 세림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아름다운재단, 현대산업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각종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명보육원에는 미취학 어린이 5명, 초등학생 33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4명이 재원(在院)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 2010 지역별 포교결집대회 ‘시작’

### 3일 대전충청 이어 18일 제주권역 진행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3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0년 지역별 포교결집대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3일 대전충청지역, 4월18일 제주지역에서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는 전남지역과 강원지역 지역 교구본사 및 포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결집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웃 종교에 비해 불교세가 열악한 인천지역의 경우 종단 지정 전법도량인 인천불교회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회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체들의 포교역량을 결집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0년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는 각 교구본사와 지역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 내 포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종단 차원의 포교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종단차원의 포교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불자들에게는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포교원장 혜승스님은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이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불교의 틀을 풀뿌리부터 다지는 차원에서 지역별 포교결집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동국역경원장 무비스님 임명

### 7일 정각원서 고불식



신임 동국역경원장에 무비스님 <사진>이 임명됐다. 무비스님은 지난 1일자로 동국대 학술원 역경원 제6대 원장에 임명됐다. 고불식은 오는 7일 오전 11시 동국대 서울 정각원에서 열린다.

고불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정연스님, 오영교 총장 등 학과 관계자와 신도 교수 직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편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동국역경원 원장은 초대 윤허스님을 시작으로

로 영암스님, 자운스님, 월운스님 등 고승들이 역임하다 2009년 처음으로 재가자인 박인성 불교학과 교수가 맡아왔다. 역경원은 또 별도 조직으로 존재하다 학술원 산하 조직으로 편제됐다.

신임 역경원장은 주춧돌인 역경사업 활성화와 상위 기구인 학술원과 관계 설정,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 공급우위 출판시장 창작력 빈곤



### 현장에서



김중찬 기자 kimjoo@ibulgyo.com

단거리와 장거리가 다르듯 연재물과 단행본 창작이 다르다. 언뜻 10km 4개가 이어지면 마라톤이 되나, 이는 아마추어의 자기 훈련이지 시장과 다르다. 달리기

가 심폐구조 차이처럼 창작은 ‘생각의 힘’이 구조 근간이다. 쏟아지는 단행본이 대부분 연재물 조합이다. 이는 저작자의 ‘항목별 생각의 조합’이 출판사의 ‘종합 기획력’이란 가미 과정을 거쳐 창작물의 순수성을 이탈했다. 창작의 핵심인 ‘생각의 구조’와 ‘마감이란 고뇌·결정’이 단계별로 충돌돼 창작의 힘이 떨어진 상황이라 그렇다. 작가의 치열한 고심 끝에 나오는 ‘진액’이 빠지고, 출판사가 이를 대행했다.

최근 출판시장은 공급이 넘친다. 공격적 기획과 투자로 단행본의 르네상스 시대다. 제작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획과 표지가 고품질 행진이다. 마치 공급우위 경제로

20년 세계 호황을 구가한 1980년대 초반과 같다.

공급우위는 어차피 수요확충을 유인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요즘 단행본 시장이 수요측면에선 ‘축소지향’이다. 책 종류와 출판사가 늘었는데도 그렇다. ‘무소유’는 불교와 다른 별도 시장으로 빠져가고 있다. 근본은 불교소재의 외면이란 사회현상이고, 단기적으로 공급의 구조적이고 장기는 신용결함이다. 작가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독자와 시장의 고유 몫이다. 이를 출판사가 대행하면 공급의 일시적 확대에 그친다. 마찬가지로 판매시점 확대도 공급자 위주라 본질 이탈이다. ‘불교 공용도서관 건립’과 템플스테이에서 ‘사찰=책’이 들어 가야 수요확대이다.

## 민추본, 6월초 조불련 관계자 ‘초청’

### 개성 실무회담서...“빠른 시일내 성지순례 재개” 합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가 우리 정부 측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스님)는 지난 3월30일 개성에서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이 빠른 시일 내에 성지순례가 재개될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금강산 성지순례는 조계종과 북측이 합의한 사항을 우리 정부가 거부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성지순례 외에는 몇 해 째 계속해오고 있는 동시 봉축법요식 및 남북공동발원문 채택, 북측 사찰 연등달기 및 점등식 등의 일부 사업에 합의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5월21일 남측 조계사와 북측 광범사에서 공동 개최한다. 또 신계사 낙성 3주년 기념법회를 10월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기로 하고 6월8일 열리는 민추본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 조불련 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추본은 “북측사찰 연등달기 및 점등식은 5월초에 갖되 장소 및 일정 규모 등은 차기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민추본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10년간의 남북불교간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남북불교도 합동대토론회 계획 등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추진은 남북간 정세 추이를 보아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민추본 사무처장 진효스님과 조계종 사회부 김영주 팀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조불련 차금철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 ‘정우스님’ <1면에 이어>

이후 30여 년간 스님은 지인들로부터 기증받거나 구입한 고서(古書)와 서화(書畵), 도자기(陶磁器) 등을 통째로 사찰 연등달기 및 점등식 등의 일부 사업에 합의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5월21일 남측 조계사와 북측 광범사에서 공동 개최한다. 또 신계사 낙성 3주년 기념법회를 10월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기로 하고 6월8일 열리는 민추본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 조불련 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1985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서 도심포교의 첫발을 내딛은 이후 양재동에 천막을 치고 구룡사 불사를 시작한 스님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처님과 역대조사, 그리고 신도들의 도움으로 대가람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이제 세속 나이로 예수를 맞이하는데,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후 스님이 장친한 수도련 사찰(포교당)이 20여개에 이른다. 스님이 창건한 도량(公刹)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건주 권한을 교구본사에 이양하고 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실현에 옮긴 것이다. 스님은 속리산 인근에 있는 폐사지

를 매입해 통도사로 등록했던 것을, 지난해 종단 승인을 받아 제5교구본사 법주사로 교구 관할을 이전했다. 1만578㎡(약 3200여 평)에 이르는 규모이다. 대지는 통도사로, 전담은 스님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법주사로 교구 관할을 이전하면서, 향후에는 법주사가 포교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님은 “종단에서 스님들이 노력한 공적을 인정해 사찰사람에 대해서는 사자상승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종단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스님들의 사유재산 출연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0년 행자교육과정 제2차 입문교육 시행 공고

종단에서는 행자교육지침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차 행자입문교육을 시행합니다.

- 다 음 -

- 기간** 남행자 - 2010년 4월 29일(목)부터 5월 2일(일)까지 3박 4일간  
여행자 - 2010년 5월 3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3박 4일간
- 장소**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번지 / 041-841-5050)
- 교육대상자** 2010년 1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등록행자 (4월 5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대상행자 명단을 공지하며, 교구본사를 통해 개별 통지함.)
- 입교시간** 남행자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까지 도착  
여행자 -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1시**까지 도착
- 준비물** 행자복착용,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02-2011-1800~3)

※ ‘행자입문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행자는 이후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없습니다.  
※ 입문교육 입교 행자들은 담당스님의 인솔 하에 입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응